

JUNGSONG KYU AND COLOURED DOTS

“더욱 열심히 자유롭게 그리라는 응원”

화가에게 작품은 자신의 삶의 궤적이다. 스스로 작품을 들여다 보며 공부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시선으로 작품 세계를 조명받는 건 작가에게 의미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칠순이 넘은 정송규(77·무등현대미술관장) 화백을 다룬 책 '정송규와 색점 추상·환희를 향한 시간과 기억의 미학(JUNG SONG KYU AND COLOURED DOTS)'의 출간은 작가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 더욱 열심히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탐구서가 됐다.

김승환 조선대 미술학과 교수가 제자들과 운영하는 아라테스 시각문화연구소가 지역 작가들을 연구하는 첫 작업으로 정송규 화백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책을 펴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경우가 드문 광주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로 연구소는 기회가 닿는대로 작업을 이어갈 생각이다.

1년 넘게 작업한 책에는 정 화백의 삶과 60년 화업이 고스란히 담겼다. 수차례 인터뷰와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 정 화백의 작품 세계를 고스란히 풀어냈고, 수많은 작품 가운데 ‘의미 있는’ 그림들에게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한 작가의 그림 인생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림 그린지 60년이 넘었으니, 작품 세계를 정리하는 화집은 하나 내 볼까 싶어 준비하고 있었죠. 제 작품론이 담긴 책을 낼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구요. 제가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늘 생각했습시다. 소위 말하는 인기 작가도 아니구요.”

책을 받아보고 정 화백은 감사를 자아내지 못했다. 자신이 모르는 자신을 알 수 있었고,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니더라”는 위안도 받았다.

정송규 작가 화업 ‘색점추상’ 출간 “60년 화업 삶 정리되는 기분” 초대 김승환 교수·제자들과 짝꿍

“조각보 작업을 할 때 ‘임동한 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규방문화라는 게 예술로 인정받기 어려웠고요. 흑백으로 색점 추상을 할 때는 또 색감이 좋은데 왜 모노톤 작업을 하나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번에 책을 보니 참 자유롭게 그렸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작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음 작업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정 화백은 이른바의 힘도 느꼈다고 했다. 자신의 작업들에서 의미를 찾아주고, 연관성을 부여해 주는 연구자들의 글과 그들이 선택한 ‘작품’을 보고 새로운 공부도 하게됐으며 “작업실에 있을 땀 온통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발견해준 작품들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점이 참 좋았다”고 말했다.

정 화백의 미적·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예술론과 함께 강렬한 붉은색이 인상적인 ‘누드’, 조각보 작품 ‘추억’과 ‘어머니의 꿈’, 대형 캔버스를 술한 점으로 가득 채우며 수많은 변용을 시도한 ‘Delight’ 시리즈와 ‘생명의 소리’ 시리즈에 대한 작품론을 통해서 정 작가의 작업 여정을 만날 수 있다. 또 1970년부터 대표작 100여점의 도판을 실었으며 오지호·임진순 등 스승과 짝꿍 사진 등 아카이브 자료들도 다양하게 담겼다.

지난 2018년 영암군오승우미술관 초대전에서 정 화백을 처음 만난 김승환교수는 지난해부터 박현화·윤정·안나영 연구원과 작업을 진행했다. 유년시절부터 현재까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 수집을 통해 집필 방향을 정했다. ‘색점추상’ 작업에 의미를 부여, 제자들과 끊임없이 토론이 이어졌고, 정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는 용어도 만들어



‘Delight-관계’

어내는 등 작품 분석이 계속됐다. “지금까지 해온 정 작가님의 작업들이 광주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습니다. 원로 여성 작가 1세대로 구상이 강한 호남 미술계에서 추상이라는 비주류의 길을 선택한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책이 정 작가 개인 뿐 아니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국내의 근·현대 미술을 연구하고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를 정리하는 안내서가 됐으면 합니다. 또 이번 작업을 진행한 제자들에게도 큰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제자들과 연구소에서 ‘멜랑콜리’를 주제로 미술작품을 읽어보는 책 등 미술 관련 시리즈물을 펴내는 작업들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자유로운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던 작가는 문자 메시지로 이런 말을 남겼다.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실험정신으로 공부할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한편 조각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박주현 지휘자

“합창의 매력은 조화로움 단원들 역량이 끌어낼 것”

4월 취임연주회 ‘빛, The Light’ 10월 ‘잔디밭 콘서트’ 계획

“각기 다른 소리를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 관객에게 전달하고 감동을 주는 합창의 매력은 조화로움에서 옵니다.”

지난 2019년 말 이후 공석이었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새로운 지휘자가 왔다. 지난 1월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박주현(41·사진) 신임 지휘자는 “음악적으로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많은 소년소녀합창단을 지휘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성장하는 단원들에게 음악적 지식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자긍심과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만난 박 신임 지휘자는 합창의 매력, 지휘자의 역할, 공연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16세 때 이탈리아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의 공연을 보고 지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그는 “합창단의 하모니와 단원들의 음악적 역량을 함께 이끌어내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이다”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와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 관객들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게 합창”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 단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심한 배려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나올 수 있어요. 소년소녀합창단에서 개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고, 그들의 재능이 최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는 올해 4월 취임연주회 ‘빛, The Light’를 시작으로 6월 지역의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ship Concert’, 10월 ‘잔디밭 콘서트’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 신임 지휘자는 “코로나 19 때문에 대면 연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공적인 공연을 위해 zoom을 통한 온라인 연습도 병행했다”며 “공연 역시 대면,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그는 영어와 음악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며 ‘영어 오페라’를 기획해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년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음악과 영어가 리듬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원들이 음악과 영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작곡가 피에란젤로 발티노니의 ‘어린이를 위한 영어 오페라’를 기획중입니다. 영어를 몰라도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생각이예요.”

박 신임 지휘자는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는 합창’, ‘쉽게 이해하는 클래식’, ‘누구나 참여하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음악을 즐기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출신인 박 신임 지휘자는 미국 유타대학교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아리조나대학교 대학원에서 합창지휘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하이랜드 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를 지냈으며, 아리조나대학교에서는 음악이론과 서양음악사 강사로 활동했다.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화성필코러스 지휘자, 대전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임지휘자로 활동했다.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물성과 과학·이성과 합리·기술과 첨단... 진현성 시인 시전집 ‘일체유심조’ 펴내



“내 일체유심조의 자해석의 변이다. 종래 불교의 관념상의 심판 일변도의 해석을 정반대로 전도시킨 발상이다. (중략) 마음도 의식이란 에너지 덩어리라 보고 마음과 물질일체 일원화(一元化) 해서 보는 일체유심체다.”

올해 구순을 맞은 진현성 시인(90·광주진내과원장)이 시전집 제15권 ‘일체유심조’ (한림)를 펴냈다.

지난해 제14시전집 ‘운월관산’까지 모두 1만 1428편을 창작했던 시인은 이번엔 703편을 더해 1만2131편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을 보유하고 있

다. 구순의 시인이 1만2000수가 넘는 시를 창작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시인은 과학과 기술로 대변되는 ‘테크놀로지’ 세상에 대한 희원을 추구해왔다. 오랫동안 현직 의사로 진료를 하며 탐색한 시상은 언어, 기교, 주제 면에서 독특하면서도 차별화된다.

김종 시인이 해설에서 말한대로 “진현성 시인의 문학에서 다음의 시상은 우리에게 숙제처럼 안겨진 그의 언어에 대한 다양성의 정리와 해명”이 될 것이다.

이번 작품집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일체유심조’다. 작품의 배면에 물성과 과학, 이성과 합리, 기술과 첨단이 자리한다.

“부처가 영취산에서 마지막 연못 한 봉오리를

드니 한 제자만이 빙긋이 웃어 전한 계 선의 직관력이다 세상법은 이 염화미소 하나로도 전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이법이다”(‘염화미소’ 전문)

‘염화미소’는 부처의 성품을 익혀 도를 깨닫는 수행이 선으로 포괄된다. 한편으로 화자는 마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물질계 진리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한편 김선기 시인(시문학과기법관장)은 해설에서 “깊어진 사물에 대한 관조와 통찰력, 그리고 등단하여 지금까지 변함없이 추구해온 휴머니즘 사상이다. 진현성 시인의 이러한 시적 정서는 50년이 지난 오늘도 그 강물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평한다. 표지 제호 및 내지 축하 휘호는 담현 전명옥 서예가의 글씨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오는 3월 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유아(만 3-5세)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생태와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한다.

신청 기관은 4회차 이상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주요사업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프로그램 운영’,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대비해 비대면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 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또는 상주단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유아대상 교육 공간(20평 내외)이 있어야 한다. 문화시설이 없는 단체는 문화시설과 업무협약을 통한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서식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 동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가능하다. 한편 지원신청과 관련된 사전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은 전화로 통한 사전예약 필수. 문의 062-670-5762. /박성천 기자 skypark@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품중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조선의 시인 허남설현

하늘 꽃 한 송이, 너는